Macro

한국 경제, 4Q는 수출이 다 했다

Economist &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한국 GDP 성장률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 연간은 -1.0%

- 코로나19 재(再) 확산 충격에도 한국 경제는 4분기에도 성장세를 유지하며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다만 민간소비가 크게 부진한 것을 수출이 방어하는 등 세부 항목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났다.
-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1.1%(전년대비 -1.4%)를 기록했다. 앞서 1분기, 2분기에 전기 대비로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침체를 나타냈으나, 3분기에 2.1%로 성장률 반등 이후 4분기에도 성장세가 유지됐다.
- 이로써 한국 경제는 연간으로 -1.0%를 기록해 글로벌 주요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성장률의 우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각종 컨센서스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을 제외하고 한국의 성장률은 최상위권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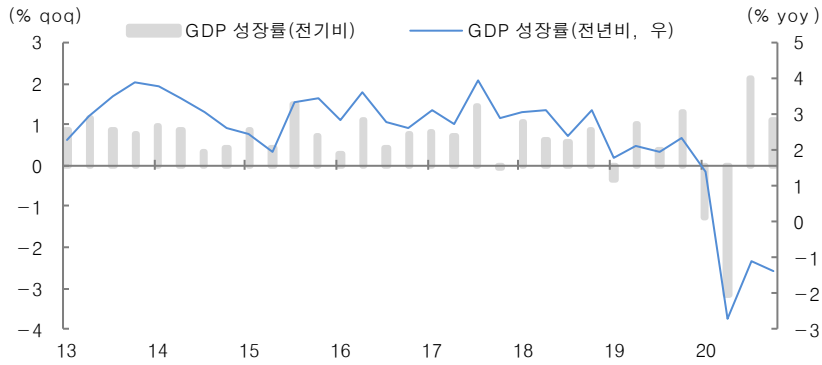
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위축, 반면 수출은 전년비로도 (+) 전환

- 한국 경제는 4분기에 소비와 설비투자가 줄었으나 수출이 증가를 지속하고 건설투자가 증가 전환됐다. 민간소비가 3분기(전기대비 0.0%)에 이전 분기 수준을 유지한 이후 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음식숙박,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위축됐고 음식료품 등 재화 소비도 부진했다.
- 정부소비는 물건비, 건강보험급여비를 중심으로 0.4% 감소했고, 설비투자는 운송장비가 감소하며 2.1% 줄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및 토목이 모두 늘어 6.5% 증가했다. 또한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5.2% 증가(전년비 1.0%)했으며, 수입은 기계 및 장비 등을 중심으로 2.1% 늘었다.
-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건설업은 증가했다. 제조업은 화학제품,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 2.8%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숙박음식업, 운수업 등이 감소했으나 정보통신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4% 증가했다.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한편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1.1%)보다 낮은 0.7% 증가에 그쳤다.

수출이 주도하는 한국 경제, 2021년 성장률 전망 2.8%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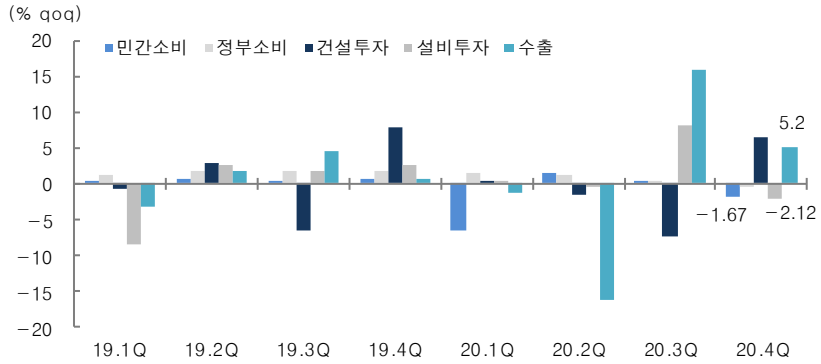
- 당사는 4분기 한국 경제가 소비 부진에도 수출 등의 대외 지표 호조로 예상을 웃도는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평가하며, 향후에도 수출 중심의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민간소비를 비롯한 내수 지표들의 반등이 거듭된 코로나19 여파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은 성장 경로의 하방 위험이다.
- 예상을 웃돈 지표는 수치 상으로 기저를 높임에 따라 향후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하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수출을 중심으로 반등 경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 글로벌 경기 및 수출 단가 등의 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사는 2021년 성장률 전망을 기존 2.8%로 유지한다.

그림 1. 한국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4분기 전기비 1.1%, 전년비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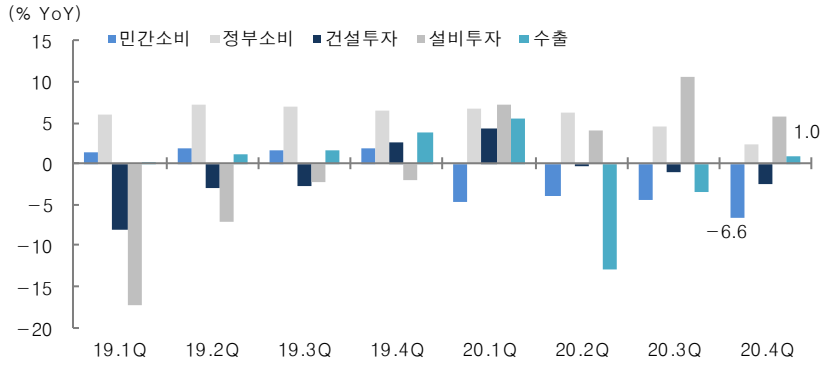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한국 분기별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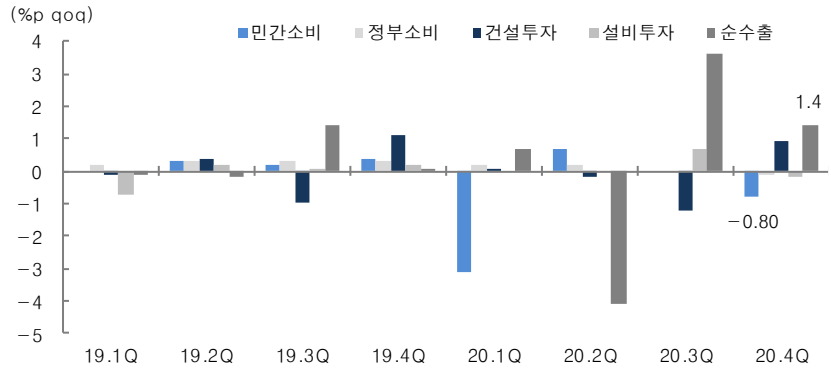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분기별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전년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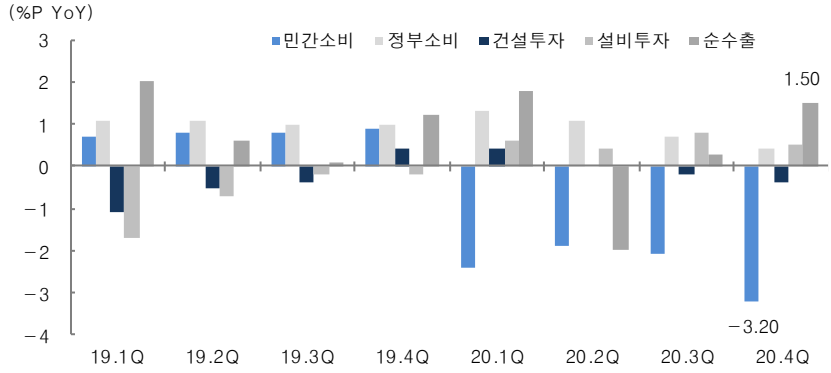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한국 분기별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기여도(전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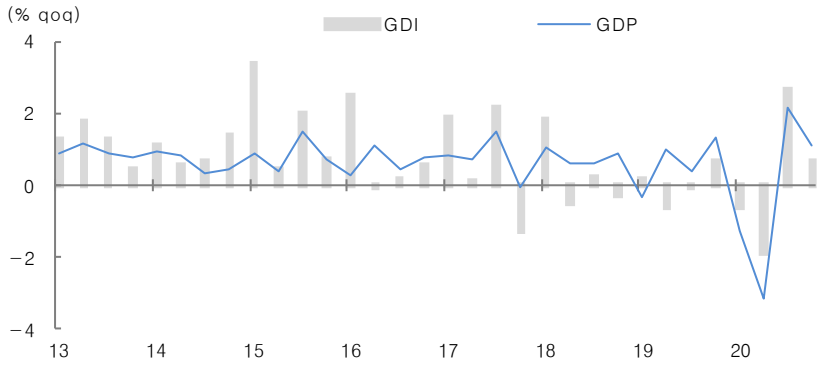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한국 분기별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기여도(전년비)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한국 분기별 GDP 와 GDI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